

李珣의 三代 인식과 道の 추구

김경래(서울대 국사학과)

1. 머리말
2. 三代의 '行道'와 變通
 - 1) 三代之治와 '行道'
 - 2) 三代의 變通
3. 古道の 회복과 弊法の 개혁
 - 1) 古道の 회복
 - 2) 弊法の 개혁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율곡 이이(1536-1584)의 경제적 목표를 당대 조선의 맥락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말과 글의 내적 구조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된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다음으로 그의 역사 인식, 당대 인식을 통해 그러한 목표가 제출된 맥락을 재구성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론의 측면에서 이이는 '제도 개혁론자'로 평가된다. 즉, 조선 건국 후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종 법과 제도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자 이를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¹ 그렇기에 이이의 경제 사상은 변화를 추구하는 '경장' 또는 '개혁'으로 표현되었고, 조선 후기에 '제도 개혁'을 추구한 유형원(1622-1673)에 앞선 선구자로 이해되었다. 실학을 '관념적 유희가 아닌 구체적 제도 개혁을 추구한 흐름'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이를 실학의 비조로까지 상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혁론자로서 이이의 모습보다는 조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규범으로서 道の 의미를 재천명하는 이이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이 경제론의 전체 틀에서 살펴볼 때 그가 제창한 각종 제도 개혁론은 도의 실행이라는 목표에 비해 부차적

¹ 이이에 대한 연구는 철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율곡학회가 2007년에 편한 『栗谷學研究叢書』의 논문편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사 분야에서 이이의 경제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도 개혁'을 그 특징으로 제출한 것으로는 아래의 두 연구가 대표적이다.

李丙燾, 1968 「經世家としての李栗谷について」『朝鮮學報』 第48輯

이선민, 1988 「이이의 경장론」『한국사론』18, 서울대 국사학과

이웃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이 경세 사상의 온전한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주목한 키워드는 三代이다. 공자 이래 유학자들은 으레 唐虞와 하·은·주 삼대를 이상적인 군주와 제도가 존재하여 이상적인 정치[三代之治]가 행해진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유학자들이 삼대지치를 정치의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문제는 그것을 정치적 修辭로 泛然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특히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자신의 구상으로 끌어왔는지를 고집어 내는 일이다.

이이 역시 삼대지치를 바람직한 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조선에서 이를 회복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이이가 삼대지치에서 무엇보다 '道'와 '變通'을 강조하였음을 주목하고, 이 둘을 중심으로 그의 경세 사상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삼대지치의 회복이라는 주장 자체도 흔히 전제하듯 당대 정치·사상의 지형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매우 논쟁적인 주장이었음을 밝히고, 여기에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이의 삼대 인식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16세기 말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士林들 운동의 선두에 섰고, 그것을 위해 조정에서 분투하였다. 그런 그가 묘사한 삼대와 17세기 '재야지식인' 유형원이 묘사한 삼대, 그리고 18세기 '탕평 군주' 영·정조가 묘사한 삼대는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작업은 한 개인에 대한 탐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의 사람들이 무엇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였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三代之 '行道'와 變通

1) 三代之治와 '行道'

선조 2년(1569) 홍문관 교리 이이는 명종의 국상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경세에 대한 구상을 국왕 선조에게 제기하기 시작한다. 특히 독서당의 月課로 제출한 「東湖問答」은 처음으로 정리된 구상을 제출한 것으로서, 새 국왕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향한 이이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이이는 다음과 같이 경세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손님 말하였다, “三代之治를 과연 오늘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말하였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²

²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 <右論當今之時勢> “客曰 三代之治 果可復於今日乎 主人曰 可復矣”

이이는 주인의 입을 빌려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이후 그는 조정에 진출했다 물러남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경세론을 피력하는데, 일관 되게 '삼대지치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이이가 파악한 삼대지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도가 행해졌다[行道]'는 점이다. 그가 삼대지치에서 가장 주목한 요소는 바로 도였으며, 역사상 도가 '행해진' 마지막 시기가 바로 삼대였다. 삼대 이후 漢 文帝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훌륭한 정치를 행했다고 평가되는 군주들이 많이 등장했으나, 이이는 이들의 정치는 결코 삼대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낮게 평가하였다. 이유는 그들의 정치에는 도가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삼대 후에 다시는 왕도를 행한 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삼대와 그 이후, 도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보는 이이의 인식은 그의 도통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이의 도통론은 기본적으로 정이와 주희의 그것을 수용, 계승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이 역시 '복희-신농-황제-요·순-우·탕·문·무왕, 주공-공자-맹자-周子-程子-朱子'의 계통으로 도통의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는 공자를 기점으로 결정적으로 도통의 전승 방식이 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공자 이후 도는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고 한때에 행해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복희-주공'인 삼대의 시기까지는 성인의 덕을 가진 자가 군사의 지위에 올라 도를 행하면서 도통을 전승하다가, 공자부터는 행하지는 않고 단지 전하기만 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마저 맹자 이후에는 끊겼다가 周子 이후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朱子 이후 마땅히 도를 전승하는 자가 없다고 보는 이이는 이제 조선에서 그 도통을 잇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君師의 지위에 있는 선조였다. 그런데 이이가 추구하는 도통의 전승은 단지 도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 修己의 노력을 다하고, 治人의 가르침을 베풀어 ... 반드시 斯道를 크게 밝히고 크게 행하여 도통의 전승에 접하신다면 영원토록 다행일 것입니다.³

이이의 목표는 도통의 전승 순서로는 분명 주희를 잇는 것이었으나, 그 방식은 삼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지 도를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대와 마찬가지로 도를 세상에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가 행해진다'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과 '단지 도를 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이가 주목한, 양자가 갈리는 조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³ 『栗谷全書』 권26, 「聖學輯要」 <聖賢道統> “伏望殿下 ... 盡修己之功 設治人之教 ... 必使斯道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

이것(도)으로써 덕을 이루는 것[成德]을 修己라 하고, 이것으로써 교화하는 것[設教]을 治人이라 합니다. 수기와 치인의 실효를 다하는 것을 傳道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통이 君相에 있으면 도는 한 시대에 행해져 그 은택이 후세에 미치고, 도통이 필부에게 있으면 도는 한 세상에 행해지지 않고 다만 후학에게 전해질뿐입니다. 만약 도통이 전승되지 않고 필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하는 캄캄하여 따를 바를 모를 것입니다. '주공이 죽은 후 백세 동안 좋은 다스림[善治]이 없었고, 맹자가 죽고 천 년 동안 眞儒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⁴

이이는 도통을 가진 자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각각 도를 행하기도, 단지 전하기만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공자 이후의 경우처럼 도통이 필부에게 있으면, 도의 영향은 '자기 몸에서만 이루어지는', 즉 '수기'의 차원으로 그치고, 그 결과 도는 단지 전해지기만 한다. 그러나 삼대까지의 상황처럼 도가 군상과 같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에게 있으면, 도는 '수기'의 차원을 넘어 '치인'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民의 교화로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이 곧 '도가 행해지는 것'이다. 결국, '도가 단지 전해질 뿐'이라는 것은 도가 개인의 수양과 완성으로 그치는 것이다. 반면, '도가 행해졌다는 것'은 도가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행동원리, 운영원리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이가 파악한 삼대지치의 핵심이자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정이와 주희의 도통론을 수용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이가 말하는 도는 다름 아니라 성리학의 도였다. 성리학 사유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평가되는 『중용』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품부 받았고, 그 품부 받은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이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따라서 性이 존재의 성격에 대한 해명이라면, 道는 그 존재가 지향하고 취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행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이 역시 도란 인간의 본성에 근본하여 발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것은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이이는 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三綱, 五常'과 같은 행위규범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古道란 산을 끼고 바다를 건너며 하늘을 오르고 허공을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부자는 仁을 다하고, 군신은 義를 다하고, 부부는 別을 다하고, 장유는 禮를 다하고, 봉우는 信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天性에 뿌리를 두고,

⁴ 『栗谷全書』 권26, 「聖學輯要」 <聖賢道統> “以此成德 謂之修己 以此設教 謂之治人 盡修己治人之實者 謂之傳道 是故道統在於君相 則道行於一時 澤流於後世 道統在於匹夫 則道不能行於一世 而只傳於後學 若道統失傳 竝與匹夫而不作 則天下貿貿 不知所從矣 周公歿 百世無善治 孟軻死 千載無眞儒 此之謂也”

좋은 덕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본래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⁵

이이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 등의 관계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도이고, 그것의 실천은 결코 고원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쉬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한편, 삼강과 오상이 신민들이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도라면, 군주가 취해야 할 올바른 도[君道]는 王道와 仁政이었다.

다스리는 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소 仁義의 도를 행하고, 不忍人之政을 행하여 天理의 올바름을 지극히 하는 것은 王道요, 仁義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리고, 권모술수의 정치를 시행하여 功利의 사사로움을 이루는 것은 霸道입니다.⁶

정치[爲政]의 최종 목적은 다스림[治]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스려진 상태 자체는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따라 仁政을 추구하는 王道와 功利를 추구하는 霸道 두 가지 길이 존재하였는데, 이이가 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왕도를 통한 다스림의 달성이었다. 이익 추구를 배격하고 인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도의 실천이었다. 요컨대, 이이가 주목한 삼대지치의 핵심은 도가 행해지는 것이었고, 도가 행해진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도가 실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대지치의 회복이라는 이이의 목표는 조선에서 성리학적 가치와 행위 규범들을 전 사회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 三代之 變通

이이가 삼대지치에서 주목한 또 다른 측면은 법제의 변통이었다. 그는 '법이란 때에 따라 제정하여, 때가 바뀌면 법 또한 같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 것 역시 역사상 삼대가 유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이는 태초 후 성인이 나타나 君師의 책무를 맡게 된 다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다스림의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⁵ 『栗谷全書』 권25, 「聖學輯要」 <爲政-明教章第九> “夫所謂古道者 非若挾山超海 陵空駕虛之謂也 只是父子盡其仁 君臣盡其義 夫婦盡其別 長幼盡其禮 朋友盡其信之謂也 此皆根於天性 發爲懿德 本非難行者也”

⁶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 <右論君道> “其所以治之之道有二 躬行仁義之道 以施不忍人之政 極夫天理之正者 王道也 假借仁義之名 以施權謀之政 濟夫功利之私者 霸道也”

天時와 地利에 따라 生養之具를 만드니, 이에 궁실, 의복, 음식, 器用이 점차 갖추어졌습니다. ... 人心에 따르고 天理에 바탕하여 教化之具를 만드니 이에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가 각각 그 도를 얻었습니다. ... 人情을 節하고 時務를 헤아려 損益之規를 만드니 文質, 政令, 爵賞, 刑罰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었습니다.⁷

여기서 '생양지구'란 의·식·주와 같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들을, '교화지구'는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이 추구할 가치와 행위규범인 도를 말한다. 그리고 '손익지구'는 공동체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손익지구'란 표현에서도 나타나듯 법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덜거나 더해야 할, 다시 말해 변경을 해야 할 대상이었다. '손익'은 『논어』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공자는 은과 주는 각각 前代의 禮를 계승한 가운데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은 하의 禮를 따랐으니, 損益한 바를 알 수 있으며, 주는 은의 예를 따랐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다. 혹 주를 계승한 자가 있다면 백세 후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⁸

여기서 공자는 하, 은, 주의 禮는 서로 계승되었고 약간의 변화만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희는 이 문구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註에서 '따른 것은 삼강과 오상이요, 손익한 것은 文質과 三統이다'란 馬融의 해석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내가 생각컨대, 三綱과 五常은 禮의 대체이니 삼대가 서로 계승하여 모두 그대로 따르고 변경하지 않았으며, 損益한 것은 文章과 制度 상의 약간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⁹

즉, 주희는 禮를 세분화하여 하, 은, 주가 인습한 것과 손익한 것의 대상을 분리한다. 그래서 삼대에는 예의 대체인 삼강과 오상과 같은 도는 그대로 계승하고, 문질, 삼통,

⁷ 『栗谷全書』 권26, 「聖學輯要」 <聖賢道統> “故順天時因地理 制爲生養之具 於是宮室衣服 飲食器用 以次漸備 ... 故因人心本天理 制爲教化之具 於是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各得其道 ... 故節人情度時務 制爲損益之規 於是文質政令 爵賞刑罰 各得其當”

⁸ 『論語』 「爲政」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

⁹ 『論語集註』 「爲政」 “愚按 ... 三綱五常 禮之大體 三代相繼 皆因之而不能變 其所損益 不過文章制度小過不及之間”

또는 문장, 제도와 같은 것들은 변통하였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도는 그대로 계승할 대상으로, 법제는 변통의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하는 의식은 이이도 마찬가지였다.

법제를 수시로 변통한 대표적 사례로 이이가 자주 든 것이 순이 요를 계승한 다음 9 주를 12 주로 바꾸었고, 우가 순을 계승한 다음에 다시 12 주를 9 주로 바꾼 사실이었다. 그리고 순이 요를 이은 뒤 禮樂刑政의 많은 부분에서 법제의 변통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이는 聖人과 聖인이 왕위를 이은 경우에조차 변통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때에 따른 법제 변통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대개 법이란 때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니 때가 바뀌면 법 또한 같지 않습니다. 순이 요를 이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같지 않음이 없었는데 9 주를 12 주로 하였고, 우가 순을 이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같지 않음이 없었는데 12 주를 바꾸어 9 주로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인이 바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때에 따랐을 뿐입니다.¹⁰

그런데 법제를 변통한다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었다. 법제의 변통은 변통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변통의 방향과 방법이 옳바를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이는 '올바르지 못한 법제 변통'의 대표적 사례로 왕안석의 경우를 들었다. 策問 형식을 빌린 한 글에서 이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子産은 鄭나라의 정치를 경장하여 晉과 楚가 감히 군대로 넘보지 못하였는데, 왕안석은 송나라의 법을 변경하여 華夏를 오랑캐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조종지법을 바꾼 것은 같은데 성쇠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¹¹

이이는 법을 개혁한 것은 자산이나 왕안석이나 똑같은데, 왜 자산은 나라를 부강으로 이끌었고, 왕안석은 쇠망으로 이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답을 「만언봉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宋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져 武略에 힘쓰지 아니하니 인종이 비록 극히 부유하였으나 무너지는 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시 大賢이 모두 변통의 방책을 생각하여 神宗에 이르러 변통의 기회를 맞았으나 有爲之志를 분발하여 신임한 것이 왕안석이었습니다. 仁義를 뒤로 하고, 功利를 우선 하고, 天人에 어긋나고, 난망을

¹⁰ 『栗谷全書』 권5, 「萬言封事」 “蓋法因時制 時變則法不同 夫以舜繼堯 宜無所不同 而分九州爲十二 以禹繼舜 宜無所不同 而革十二爲九州 此豈聖人好爲變易哉 不過因時而已”

¹¹ 『栗谷全書』 권14, 「策問 四」 “子産 更張鄭國之政 而晉楚不敢加兵 安石變更宋家之法 而華夏入于腥羶 其改祖宗之法一也 而盛衰不同 何歟”

촉진하여 도리어 바꾸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과 같았습니다. 점차 큰 화에 이르게 하여 夏를 夷로 만들었으니 다른 것은 얘기해 뭐하겠습니까.¹²

변통이 필요한 시기에 왕안석은 신종의 신임을 받아 변통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변통은 인의보다는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이이는 평가하였다. 변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변통의 방향이다. 즉, 그것은 도를 실현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이처럼 법제의 변통은 결코 도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삼대의 법제 변통이 올바른 이유는 도가 행해지는 상태에서, 법제의 변통 또한 때에 맞추어 잘 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후대의 문제점은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서, 법제의 변통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있었다. 이이는 삼대 이후 오히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고, 바꾸어야 할 것은 고집'했기 때문에, 즉 그대로 유지해야 할 도는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바꾸어야 할 법제들은 목수한 결과 다스려진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은 많았다고 평가하였다.

상하 수천 년 간 역대 치란의 흔적이 대개 이와 같으니 때에 따라 잘 구한 것은 단지 三代뿐입니다. 삼대 이후 구한 것은 진실로 드물고, 또한 道를 다하지 않았습니니다. 대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제이고, 고금 모두 바꿀 수 없는 것은 王道, 仁政, 三綱, 五常입니다. 후세에 道術이 밝지 않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고집스레 지키니 이것이 다스려진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은 많은 이유입니다.¹³

따라서 후대에는 도의 회복과 법제의 변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상 도의 회복과 유지가 법제 변통보다 더 근원적이며 중요한 문제였다. 도를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제를 변통해 봤자, 선조의 말처럼 '한 가지 폐해를 고치려 하면, 또 다른 폐가 생겨 도리어 해만 생길 뿐'이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이는 삼대지치에서 법제의 변통에도 주목하였다. 그런데 법제의 변통이 어디까지나 도와의 연관 속에서 사유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법제 변통의 전제로서 도의 실행을 중시하였으며, 그렇기에 유일하게 삼대에 법제의 변통이 제대

¹² 『栗谷全書』 권5, 「萬言封事」 “紀綱漸弛 武略不競 仁宗雖極富庶 而頹靡之象已著 當時大賢 皆思變通之策 直至神宗 值可變之會 奮有爲之志 而所信任者 王安石也 後仁義而先功利 違天人而促亂亡 反不如不變之爲愈也 馴致大禍 變夏爲夷 他尙何說哉”

¹³ 『栗谷全書』 권5, 「萬言封事」 “上下數千年間 歷代治亂之迹 大概如此 隨時善救者 只見於三代而已 三代以後 救者固鮮 而亦未盡道焉 大抵隨時可變者 法制也 亘古今而不可變者 王道也 仁政也 三綱也 五常也 後世道術不明 不可變者 有時而遷改 可變者 有時而膠守 此所以治日常少 亂日常多者也”

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삼대 이후에는 법제의 변통과 함께, '도의 회복'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3. 古道の 회복과 弊法の 개혁

이이가 조선에서 삼대지치를, 고도를 당장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삼대지치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삼대지치를 급박하게 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적이었다.

옛부터 사람의 소견이 같지 않아 우월한 선비는 요순지치를 조석간에 할 수 있다 하고, 속류는 고도를 결코 오늘날에 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모두 틀렸습니다. 다스림[治]을 위해서는 마땅히 唐虞를 기약하되, 일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신이 옛날에 옥당에 있을 때 매번 당우와 삼대의 일을 계달하니 상께서 답하시길, '어찌 갑자기 할 수 있는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옳습니다. 제 뜻 또한 갑자기 그 효과를 보자는 게 아니라 다만 오늘 하나의 일을 행하고 내일 하나의 일을 행하여 점차 佳境에 들어가자는 것일 뿐입니다.¹⁴

점진적인 방법을 통한 삼대지치의 회복을 위해, 이이는 조정과 민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전술을 세웠다. 그 전술을 미리 말하자면, 조정에서는 정치의 근본인 군주부터 도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민에게는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1) 古道の 회복

이이는 삼대 이후 수천 년간 '東方'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유래가 없었던 '도의 실행'을 조선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확신은 이이가 성리학의 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이는 시기에 따라 변하는 제도와 달리 도는 변함 없는 절대성을 띤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이에게 도란古今에 상관없이 언제든 실천해야 할 무엇으로, 삼대와 현재 사이에 아무리 먼 시간적 간극이 있더라도 도의 의미와 가치는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삼대의 도는 古道로도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옛 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이기도 했다. 이는 마치 '개벽 이래 산천초목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과 같아서, 수 천년 전의 도와 현재의 도는 같을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같을 수 밖에 없었다.

¹⁴ 『栗谷全書』 권29, 「經筵日記」 <萬曆元年癸酉 今上六年> “自古人之所見不同 迂儒則以爲堯舜之治 朝夕可做 流俗則以爲古道決不可行於今日 此皆非也 爲治須以唐虞爲期 而事功則須以漸進也 臣昔者忝冒玉堂 每以唐虞三代之事啓達 則自上答曰 何以猝然爲之乎 此教是也 臣意亦非欲遽見其效也 只欲今日行一事 明日行一事 漸入佳境耳”

지금 사람들은 도학을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또 옛날과 지금은 마땅함이 다르다는 것을 바꿀 수 없는 定論으로 여깁니다. 무릇 개벽 이래로 오늘날까지 몇 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나, 천지가 한 데 섞여 있는 모습은 옛날과 같고, 산이 우뚝 솟아있고 냇물이 흐르는 모습도 옛날과 같고, 草木禽獸의 모습도 옛날과 같습니다. 인간의 궁실, 의복, 음식, 器用은 모두 聖人이 만든 것에서 비롯하여 생명을 기르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天敍天秩로서 인심에서 비롯하고 천리에 근본하여 萬古에 걸쳐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편히 여기고 끝내 옛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¹⁵

이이처럼 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 자들은 '고도를 애기하고', '고도를 사모하여', '고도를 회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眞儒'라 자부하였다. 삼대, (고)도에 대한 언급과 그것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들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도의 절대성, 고도의 회복에 대한 믿음은 당대 조선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이는 이러한 자들을 '俗流' 또는 '流俗'이라 지칭하였다. 위에서 이이도 언급하였듯이 속류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그들은 '도(학)은 높고 원대하여 행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고도의 회복'이라는 논의를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진유들이 '허위의 풍습을 진작하여 이름을 낚는다'고 비난하고, '진유가 어찌 지금 세상에 나올 수 있겠느냐'며 의심하였다. 둘째, 그들은 '옛날과 오늘날의 원칙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도의 절대성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삼대에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지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고도는 결코 회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만약 묵은 것을 개혁하여 다시 새롭게 바꾸면 인심이 불안하여 장차 위태로워지고 어지러워질 것이다'라며 반박하였다.

도에 대한 진유와 속류의 상반된 입장은 결국 도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 여부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었다. 이이가 보기에 속류는 입으로는 도를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일견 표면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행의 측면에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이는 속류가 '읽고 말하는 것은 聖人の 글과 말이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세속의 행위를 따른다'며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자 하였다.

¹⁵ 『栗谷全書』 권26, 「聖學輯要」 <聖賢道統> “今人既以道學 爲高遠難行 而且以古今異宜 爲不易之定論 夫自開闢以來至于今日 不知其幾千歲 而天地混淪磅礴之形 猶舊也 山川流峙之形 猶舊也 草木鳥獸之形 猶舊也 以至於斯人之宮室衣服飲食器用 皆因聖人之制作 以養其生 不能闕廢 而獨於天敍天秩 因人心本天理 亘萬古而不可變者 則乃安於數敗 以爲終不可復古者 抑何見歟”

사람 중에는 행동거지가 청렴결백하고 忠信한 것 같으나, 古道를 좋아하지 않고 儒者를 깊이 미워하여 끝내 賢人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士類라 하나 안으로는 품행이 바르지 않고, 세력 있는 자에게 붙어 그의 힘을 빌려서는 利欲의 사사로움을 마음대로 행하여 끝내 조정을 어지럽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¹⁶

그렇기에 이이는 조선의 儒者 가운데 그 누구보다 조광조를 높이 평가하였다. '東方에 유자로서 이름난 자들이 많지만, 막상 언행을 살펴보면 유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오직 '조광조만이 도학을 唱明하여 후인을 인도한 공이 있다'고 평하였다. 이이는 도에 대한 믿음과 실천 의지를 가진 자만을 진정한 유자로 평가하고, '도를 행하는 것을 자임'한 조광조를 그 시초로 둔 것이다.

그런데 진유와 속류는 단지 이론적 논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공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이는 속류가 '고도를 행하려는 사람을 비웃고 배척'하려 한다고 보고, 이들이 장차 진유를 해칠 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김개 같은 인물은 기묘년 조광조 일파의 사례를 거론하며, '부박한 무리들이 조정에 동류를 끌어들이고 자기와 다른 무리들을 배척하는 풍습을 억제할 것'을 선조에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정철이 '앉아서 망하기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쳐버리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기도 할 정도로, 진유와 속류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묘와 을사 연간에 진유가 속류에 의해 화를 당했다는 경험은 이런 위기감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마음은 고도를 사모하고, 몸은 儒行을 신칙하고, 입은 法言을 말하며, 公論을 부지하는 자를 사림이라고 합니다. ... 己卯의 諸賢은 責難陳善하여 唐虞에 이르게 할 것을 기약하고 公論을 方持하였으나 남곤, 심정의 무리가 기회를 틈타 일망타진하였습니다. 乙巳의 世현은 聖君을 만나 世道를 만회하려고 公論을 부지하였으나 윤원형, 정순봉, 이기의 무리가 세를 이용해 화를 겪었습니다.¹⁷

여기서 이이는 진유 대신 사림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림이 고도를 회복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반대파에 의해 화를 당했음을 상기시키며 선조에게 이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¹⁶ 『栗谷全書』 권3, 「玉堂陳時弊疏」 “人固有行之似廉潔 居之似忠信 而不悅古道 深惡儒者 終至於妨賢病國者焉 亦有外託士類 內無行檢 攀附以假吹噓之力 得志方濟利欲之私 終至於濁亂朝著者焉”

¹⁷ 『栗谷全書』 권3, 「玉堂陳時弊疏」 “夫心慕古道 身飭儒行 口談法言 以持公論者 謂之士林... 己卯 諸賢 責難陳善 期致唐虞 方持公論 而南袞沈貞之徒 伺隙設機 一網打盡焉 乙巳 諸賢 遭遇聖君 欲回世道 方持公論 而尹元衡鄭順朋, 李荇之徒 乘勢構禍”

문제는 군주인 선조 역시 도에 대해 믿음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선조는 '지금 시대에는 결코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진유'의 이야기들에 대해 '高論'이라거나 '大言'이라 표현하면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이가 보기에 당대 조선의 현실은 '이백 년 종사가 위험'한 상황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권간의 집권'을 거치면서 世道는 기묘와 을사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는 義보다는 利를 추구하고,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결과 '公이 私를 이기지 못하고, 正이 邪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利慾의 해가 이단의 해보다 심한 상태'가 바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이는 일단 정치의 근본인 군주의 마음부터 도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선조에게 立志를 매우 강조하였다. 일반인에게 立志는 성리학을 자신의 신념과 행동규범으로 삼겠다는 修己 차원의 결심이지만, 군주에게 입지는 왕도정치를 행하겠다는 爲政 차원의 결심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의 절대성에 대해 믿음을 가진 이이는, 속류들의 반대와 국왕 선조의 회의 속에서도 조선에서 도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것은 기묘와 을사 연간에 벌어졌던 '사림' 또는 '진유'들의 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특히 권간의 집권기를 거치면서 世道의 하락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았기에, 이이는 그만큼 더 도의 실행을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2) 弊法の 개혁

삼대지치의 회복을 위한 전술로서, 특히 민에 대해 이이는 더욱 점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의 경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다음의 정책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향약 시행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지만, 당장의 시행에는 반대한 것도 '衣食이 족한 연후에야 예의를 알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이가 보기에 당대 백성들의 경제적 삶은 극심하게 피폐한 상태로서, 시급히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위 '권간의 집권'을 거치면서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익 추구가 만연하고 그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가운데 만들어진 각종 법제들이 민을 괴롭히는 주범이라고 보았다. 이이는 그런 폐법들이 너무 많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특히 공납과 요역의 문제를 들었다. 공납의 경우, 연산군대 소비가 늘어나 공급이 부족하자 貢法을 바꾸어 제반 공물을 더해 정한 것을 여전히 준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防納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였다. 요역은 특히 군역이 문제였는데, 軍籍을 완성하는 데 급급하고 허실을 따지지 않아 어린아이에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역의 부담도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이는 세금과 요역을 가볍게 하는 것에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까지 첨

가하여, 이 세 가지를 민생 안정의 요체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이의 시각과 달리, 그 법제들은 조종지법이므로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도 강하였다. 소위 속류와 군주 선조의 견해가 그러하였다. 속류는 '충신이라면 마땅히 조종을 본받아야 하지, 조종지법을 바꾸고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선조 역시 '만약 조종지법이 아니면 경장이 왜 어렵겠느냐'며, 자신도 법을 변통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그것들이 조종지법이라 쉽사리 그러지 못함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이는 그것들이 결코 조종지법이 아님을 강조하며, 변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弊習과 吳規를 낱낱이 아뢰기 어려운데, 기묘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필시 을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논하는 자는 조종지법이라 하여 감히 경장의 논의를 열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위 時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비록 성왕의 입법이라도 만약 賢孫이 변통하지 않으면 끝내 폐해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조종의 입법 초에는 진실로 周의 상세함을 지극히 하였으나, 이백 년이 지나면서 때가 변하고 일이 바뀌어 폐단이 없지 않아 오히려 변통할 만한데 하물며 후일의 잘못된 규례는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¹⁸

기존 연구에서는 이이가 조선 건국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종 폐단이 발생하자 이의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즉, 조선 건국 이래의 법제들, 조종지법에 대한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말과 글을 살펴보면 개혁의 초점은 조종지법이 아니라 '조종지법'으로 '오해'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그대로 묵수되고 있는 법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이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조종지법으로 오해되는 법제들의 실체는 근래에 권간들이 만든 것들이다. 비록 조종지법이라도 오래 되면 폐단이 발생하므로 고쳐야 하는데, 하물며 권간들이 만든 최근의 잘못된 법제는 마땅히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였다.

실제 이이는 조종지법에 대해 오히려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服制 문제였다. '졸곡 후 연거 시 黑笠을 착용할 것인가 白笠을 착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선조대 초반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는데, 속류 대신들이 흑립을 착용할 것을 주장함에 반해, 이이는 『국조오례의』에 나온 대로 백립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국조오례의』에 대해 이이는 '삼대지제에 전부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자못 詳密한 것이 있으나 漢唐 이래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또, 이이는 출신이 아닌 자를 헌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는데, 이 역시 조

¹⁸ 『栗谷全書』 권5, 「萬言封事」 “弊習謬規 難以縷陳 而不始于己卯 必成于乙巳 而今之議者 擬以祖宗之法 不敢開更張之論 此所謂不知時宜者也 大抵雖聖王立法 若無賢孫有以變通 則終必有弊 ... 我國祖宗立法之初 固極周詳 而年垂二百 時變事易 不無弊端 猶可變通 況後日謬規 汲汲改革”

종의 제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법제 개혁의 측면에서 이이는 '권간의 집권기'에 만들어진 폐법은 제거하고, 그 기간에 없어진 조종지법 가운데 좋은 법은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민생을 안정시킨 후, 이이가 다음 목표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동호문답」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법[右論安民之術]'에 대해 논한 다음,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右論教人之術]'을 이야기 하고, 『성학집요』에서 '安民'장 다음이 '明教'장인 것은 모두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 편집이었다. 이들 저술들의 각 장 순서는 곧 사업의 순서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의 교화가 달성된 상태는 다름 아니라 도가 행해지는 상태였다. 삼대에 도가 행해질 때만이 민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후에는 간혹 민이 부유한 적이 있으나 교화가 행해진 적은 없다는 것이 이이의 인식이었다. 도의 절대성을 믿고 실행하려던 이이에게 정치의 최종 목적은 성리학적 도로써 민을 교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삼대지치를 회복하는 것과 같았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는 司牧을 세웠는데 사목은 君師를 겸하여, 牧者로서 백성을 기르고, 君으로서 다스리고, 師로서 가르쳤습니다. ... 삼대 이전에는 三者가 각각 그도를 다하여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화가 행해져 다스림은 융성하고 풍속은 아름다웠습니다. 후세로 내려가 도학이 행해지지 않아, 군주가 몸소 행하는 실재가 없고 모범으로서 사방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없으며 단지 법령으로써 한 세상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혹 인자한 군주가 있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한 적은 있으나 교화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彝倫이 질서를 잃고 풍속이 무너진 것이 어찌 괴상하겠습니까.¹⁹

다만, 이이는 민생에 대한 고려 없이 향약을 성급히 행하려는 자들과 같이, 결코 민의 교화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접근은 '하나에만 집착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백성들 기르는 것[養]과 가르치는 것[教]을 같이 행하여 그 둘을 함께 이룰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렇기에 민생의 안정을 위한 폐법의 개혁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다.²⁰

19 『栗谷全書』 권25, 「聖學輯要」〈爲政-明教章第九〉“臣按 天生斯民 立之司牧 司牧實兼君師 牧以養之 君以治之 師以教之 ... 三代以前 三者各盡其道 故政成化行 治隆俗美 降及後世 道學不行 人君自無躬行之實 無以表正四方 只以法令把持一世 間有慈仁之主 或致斯民之富庶 而教則蔑聞 何怪乎彝倫失敘 風俗頹敗乎”

20 『栗谷全書』 권25, 「聖學輯要」〈爲政-明教章第九〉“惟是人君 方立躬行之志 方發施仁之政 而漸次設教 則養與教可以竝行而相成矣 化民之道 其要如此”

4. 맺음말

보통 이이는 '제도의 변통'을 추구한 인물로만 묘사된다. 그러나 이이의 역사 인식, 그리고 당대 인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근본적인 과제로 인식하였는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도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이는 조선 건국 이래 당대 주류적 위치에 있던 儒者들과 구별 짓기, 차별화를 시도했다. 고려 말 중국에서 성리학이 수입된 이래, 많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가 보기에 道에 대한 그들의 이해나 믿음, 그리고 실천의지는 모두 불완전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이가 본 당대 현실은 '권간의 집권' 이후 이익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등 세도의 하락이 절정에 달했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각종 폐법들이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이의 경제적 목표의 초점은 조선 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행위규범을 '재천명'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하였다. 그가 폐법의 변통을 역설한 이유는 도의 실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민생의 안정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이 경제론의 핵심적 목표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리학적 도의 실행을 통해 조선사회를 성리학적 사회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위치는 흔히 그러하듯 조선 후기 유형원의 선구자가 아니라, 조선 전기에 '도의 실현'을 주창한 조광조(1482-1519)를 비롯한 기묘 사림 그리고 을사 사림의 후계자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이 경제 사상은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조선 전기와 중기의 시대상을 새롭게 그리는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